우주인 이소연씨 두번째 화상대화

우주정거장(ISS) 생활 5일째인 14일 밤 8시 한국인 첫 우주인 이소연씨가 SBS TV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체중 0…깃털처럼 날아 다녀요 뉴스·영화 보며 외로움 달래"

"우주에서도 영화보고 뉴스도 봐요."

우주 생활 5일째를 맞은 광주 출신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29)씨는 14일 오후 8시8분(국제표준시간 GMT 오전 11시8분) SBS와의 우주 생방송 인터뷰에서 반바지 차림의 자연스러운 '우주 유영'을 선보이는 등 여유로운 우주생활을 전했다.

이씨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의 생활은 무엇보다 정신적인 안정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동료 우주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주에서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임을 알았다"면서 "그래서인지 사회적 능력, 동료들과의 호흡 등을 우주인의 조건중 최우선으로 꼽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우주에서도 "지상과 전화통화도 가능하고 영화도 보고 뉴스도 볼 수 있어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또 "모든 분들이 저처럼 우주의 느낌을 만끽했으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하루빨리 우주강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소연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GMT 오전 6시30분)에 기상, 한국식으로 아침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또 그동안 계속해 온 제올라이트 실험, 금속 유기 다공성 물질 결정성장 실험, 극한대기 현상관측 실험, 초파리 실험, 식물 생장 실험, 우주식품 실험, 얼굴변화 실험, 차세대 메모리 소자실험 등을 계속 진행했다.

◇"여기는 ISS" 아마추어 무선교신 성공=이씨는 13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소연씨와 첫 아마추어 무선교신에 성공했다.

전국에서 선발된 초·중·고생들은 ISS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13일 오후 7시59분부터 8시8분까지 경기도 평택시 한광고 강당에서 아마추어 무선통신(HAM) 장비를 이용, 우주정거장에서 머물고 있는 이씨와 9분간 교신했다.

이씨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정부 관계자와 학생, 참관단은 박수와 환호를 터뜨리며 색다른 경험을 만끽했다. 첫 교신자로 나선 한광고 3학년 박재훈(19)군이 "무중력 상태는 어떤 느낌이며 활동에 어려움은 없습니까?"라고 묻자 이씨는 "처음에는 여기저기 부딪혀 무릎에 멍도 들었으나 이제 제법 잘 피해다니는 편"이라고 답했다.

◇가져간 짐 49㎏ 가져올 짐 8.4㎏=19일 미국 여성 우주인 페기 윗슨, 러시아 우주인 유리 말렌첸코와 함께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카자흐스탄 초원지대로 돌아올 이소연 씨의 귀환 보따리는 처음 가지고 올라간 49㎏보다 훨씬 가벼워진 8.43㎏으로 돌아온다.

이 때문에 이 씨는 지구로 돌아올 때 태극기와 유엔기, 가족사진 등은 모두 가져오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는 18가지 우주과학실험 관련 장치들은 대부분 버리고 그 결과물들만 가져오게 된다.

이 씨는 디지털카메라는 ISS에 선물로 주고 우주저울도 계속 사용하도록 ISS에 놓고 올 예정이다. 과학실험 데이터들은 저장장치(SD메모리)에 담겨 지구로 돌아오며 만일에 대비해 모든 자료를 백업한 하드디스크도 가져온다. 특히 지난 2월 유엔 외기권평화이용위원회(COPUOS) 과학기술소위원회로부터 받은 유엔기는 이 씨가 귀환 후 6월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직접 예방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 씨가 ISS에 남기고 올 각종 실험 장비 등은 폐기용 우주화물선 프로그레스호에 쓰레기 등과 함께 실려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면서 모두 불타 사라지게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이건희 회장 불구속 기소 검토

삼성특검 추가 소환자 없이 마무리 조사 주력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4일 비자금 등 일부 의혹에 연루된 임직원 몇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것으로 드러난 일부 계열사의 재무 담당자와 책임자 등이 영장청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석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관련, "지금은 없다. 다만 영장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해 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구속 피의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특검팀이 비자금·경영권 불법승계·로비 가운데 어떤 의혹과 관계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느냐가 특검팀의 수사 의지와 대강의 결론을 점쳐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불기소 처분키로 가닥이 잡힌 로비 의혹이나 그룹 최고위층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의 경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 조사가 필요한 의혹이 있다'며 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비자금 의혹에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특검팀은 이날 소환자 없이 마무리 조사에 주력하는 한편 금감원에 의뢰한 차명계좌 700개 등 1천300여개 차명계좌를 대상으로 개설·관리 주체와 비자금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또 이건희 회장의 소유로 드러난 일부 차명재산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는 삼성측 주장과 관련,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포탈세액 산정을 위해 막바지 수치 계산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회장과 함께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등 실권한 계열사 대표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世銀, 식량위기 타개 '신뉴딜 정책' 착수

세계은행은 로버트 졸릭 총재가 식량위기 타개를 위해 제시한 '신뉴딜 정책'을 공식 승인하고 그 일환으로 식량 폭동으로 정부가 와해된 아이티에 추가로 1천만 달러를 긴급 지원키로 했다.

졸릭 총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지금 당장 굶주린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세계은행 개발위원회가 식량위기 타개를 위해 자신이 제시한 '세계 식량 뉴딜 정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졸릭은 세계식량계획(WFP)이 내달 전까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밝힌 5억달러 모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번엔 '테러분자' 논란 오바마 또 발목 잡히나

애국심 논란에 시달려 온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이번에는 '테러분자' 논란에 휩싸였다. 공화당이 1970년대 악명을 떨친 테러단체 '웨더맨'(Weather Underground)의 일원이었던 윌리엄 와이어즈 일리노이주립대 교수와 오바마 의원의 관계를 문제삼고 나선 것.

70년대 테러단체 일원 와이어즈 교수와 친분 공화당 문제 제기 시끌

'웨더맨'은 과거 미 국회의사당과 국방부, 국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를 통해 베트남전 반전 운동을 전개했던 극좌파 학생운동단체다. 13일 영국 선데이 타임스에 따르면 한때 이 단체에 몸 담았던 아이어즈는 1990년대 후반 오바마 의원의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운동에 잠시 참여했으며, 2001년 재선 때는 오바마 의원 진영에 200달러의 기부금을 내기도 했다. 두 사람은 또 3년간 자선단체인 우즈 기금의 이사로 활동하며 학술회의에서 두 차례 함께 연설을 한 경력도 있다. 오바마와 아이어즈의 이 같은 관계는 최근 폭스 TV의 보수성향 진행자 션 해니티가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아이어즈를 공격하고 나서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니티는 아이어즈를 '반성할 줄 모르는 테러분자'라고 비난했으며,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도 "오바마 의원은 극좌파나 반미주의자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듯 하다"고 비꼬았다. 칼 로브 전 백악관 정치고문도 "오바마 의원과 아이어즈는 함께 연설을 했으며, 아이어즈는 오바마의 지지자였다"면서 이들이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바마 진영의 벤 라볼트 대변인은 "오바마 의원은 웨더맨의 폭력적 행동을 규탄해왔다"면서 "게다가 웨더맨이 한참 활동하던 시기에 여덟살 밖에 안 됐던 오바마 의원과 그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 목사의 미국 비하발언 파문에서 간신히 나온 오바마 의원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합뉴스

"전작권 이양 차질없이 진행 한미동맹 더욱 강화될 것"

벨 주한미군사령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으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청량2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4차 한·미 국방분석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근간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한반도의 안정은 유엔사나 연합사가 아닌 이 조약을 통해 유지돼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일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5년 계획의 한·미 군사 연습 프로그램이 수립되는 등 전작권 전환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3월 키리졸브 연습은 새로운 연습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오늘 밤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태세 연습이었고 대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벨 사령관은 "오는 8월 최초로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우리의 주임무 수행과 지원관계를 연습함에 있어 사령부, 참모, 전력개발 훈련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는 (여기서) 도출된 교훈들을 반영, 다음해 UFG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양국군의 역할 및 구조와 관련, "현재에도 미국의 1개 군단이 전구·전쟁 계획 지원을 위해 한반도로 전개할 경우, 한국군의 4성 장군이 지휘하는 1,3야전군사령부로 전술 통제 전환된다"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되며 이 때 선임 지휘관은 한국군 장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달라이 라마 "티베트 폭력사태 확산땐 은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13일 티베트에서 폭력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할 경우 티베트 망명 정부의 지도자 자리를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달라이 라마는 이날 시애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사태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티베트 사람들의 대다수가 폭력에 의지하더라도 은퇴하겠다며 "폭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 비폭력 투쟁을 강조했다. 그는 티베트가 독립을 추구한다는 중국 측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뉴스